

벌써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 교회와 저희 가족이 모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동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목사님과 귀교회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 농아교인들이 주일예배, 수요일예배에 열심히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뉴저지에서 금요성경 공부를 위해 성도들이 열심히 모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도버시(델라웨어)에서 목요성경공부를 하고 있었지만 장소를 빌려주었던 교회에서 갑자기 사정상 더이상 장소를 빌려줄 수 없다고 하여 현재 임시로 성경공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다른 교회를 찾을 생각입니다.

특히 한 네팔 농아인은 저희교회에 오고 싶어도 일요일에 식당에서 일해야 하기 때문에 못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가 월요일마다 식당이 휴일일 때 따로 만나서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네팔 농아인은 영주권을 받게 되면 식당 일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찾고 주일에 교회에 나오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남미농아선교 상황은 지난 6월말에 콜롬비아와 브라질에 잘 다녀왔습니다.
콜롬비아에서 많은 농아인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3일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농아인들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많이 모르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콜롬비아에 농아목사님이 3명 밖에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콜롬비아에 농아신학교를 지어서 청년 농아인들에게 신학을 가르치고 교역자를 양성해서 콜롬비아 전 지역에 흩어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LA에 계신 유태인 미국목사님이 농아신학교에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고 학생 책상겸 의자를 지원해 주시기로 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콜롬비아 농아인의 할머니께서 4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다하여 그 할머니를 만나 농아신학교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더니 건물의 4층을 빌려 주겠다고 하셔서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4층안에 남자기숙사와 교실, 주방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준비하고 기도해야 할 것들이 많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 드리면 이 농아 신학교를 계획하고 준비하는데 쉽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브라질에서도 농아교역자가 매우 부족하여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두 곳을 다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몇 명을 불러 콜롬비아 농아신학교에
입학시켜 신학을 가르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미선교를 마치고 미국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한국과 미국에
농아교역자들은 충분히 있는데 남미에는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농아교역자들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몇 일전에도 콜롬비아 농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다고 빠른
시일내에 한 번 다시 와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계속 요청을 하여 10월말에 콜롬비아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간김에 현지 목사님들과 신학교 준비를 위하여 회의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것 위에 주님께 은혜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사역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또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언제나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철 목사 드림